

### Ⅲ. 대사회 봉공활동 방안

안 훈 위원\*

(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1. 序.....	23
2. 대사회 봉공활동 현황.....	24
3. 마무리.....	28

#### 1. 序

지금부터 10년 내지 20년 전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참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안타까운 도움이 필요하기에 종교인들은 봉공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원불교 교리의 네가지 실천 방향인 사대강령의 결론이 무아봉공이다. 이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眞我 大我를 발견하여 무소유의 정신으로 인류와 사회에 헌신 봉공하는 생활로 생활종교인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상수행을 하면서도 결실을 맺는 공부가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이다. 교단의 본격적 사회사업의 시초였던 전재동포구호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사회 각 계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지만 지속적인 연결작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 봉공활동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며 강력한 사회참여이며, 사회정의의 실천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교단에서 크게 봉공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의 3개 단체를 살펴보고 대사

\* 안 훈 위원 : 원기 84~85년까지 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중앙중도훈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 봉공활동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대사회 봉공활동 현황

### 1. 솔솔송 자원 봉사대

#### 1) 솔솔송의 시작

1985년 1월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데모와 시위가 끊일 날 없었던 암울한 시절에 중앙청년회 장연광·한은숙교무와 당시 이리교구 청년회 남궁문회장 등 청년회원 25명이 뜻을 모아 언덕위의 하얀집으로 불리워지는 원광의대 정신과 병원을 매주 토요일 오후 방문하여 즐거운 노래와 레크레이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4년 후 청소년을 위한 솔솔송 청소년 공연을 실시하면서 ‘솔솔송’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95년까지 약 10년 동안 2,500여명의 청년들이 종교와 성별과 종교의 울을 넘어서 매월 1회 은혜훈련을 통하여 하나되는 마음으로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교법정신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 원불교 중앙청년회 회장단으로 또한 전국의 교당과 일터에서 샘물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시대의 주인들이 되었다. (참고; 출가 교역자 15명, 정토회원 20여명 배출)

이후 1996년 2월 사단법인 솔솔송 자원봉사대의 인가(이사장 이연희)를 받고, 그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활동 내용

솔솔송 자원봉사대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원광의대 제2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청소년을 위한 솔솔송 청소년 공연, 정신요양원인 삼정원 봉사활동, 환자 및 무의탁노인들의 수용시설인 원광노인요양원까지 봉사하는 등 그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오다가, 1996년 2월에 사단법인 솔솔송 자원봉사대로 인가를 받아 총체적 자원봉사를 전개하였다. 5년 전부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봉사, 익산노인의 전화 개통, 역전 노인 무료 급식, 노인 문화 교실 개설, 마음대조 공부방 개설, 익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위탁, 학생봉사대 결성 등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98자원봉사 대축제 우수상, 전라북도 자원봉사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익산시 청소년 우수 단체 수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봉사 수혜인원은 연 1만명을 넘고 있으며, 봉사대원수도 다양한 계층에 부응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4,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봉사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유년 봉사대	초등 학생 봉사대	중고등 학생 봉사대	대학생 봉사대	청년 봉사대	어머니 봉사대	어르신 봉사대	전문직 봉사대	외국인 봉사대	합계
55	240	1,500	60	2,520	55	65	45	6	4,546

이상의 활동내용과 사업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익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위탁이다. 이는 교단 내적인 활동에서 대사회 봉사활동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미래적 과제

작고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솔솔송은 16여년의 역사를 지니면서 사단법인체로 되었고, 익산지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봉사단체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교구·지구·교당 등의 지역에 지회 확산이 큰 과제로 나타나 있다. (사)솔솔송 자원봉사대의 본부 활동을 모델화하여 전국지역지회 확산을 위한 교단 내·외적인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구·지구·교당 중심의 솔솔송자원봉사대의 지회 확산을 위한 교단, 교구의 관심이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사)솔솔송 자원봉사대의 지회확산의 교단 대내외적 요청을 살펴보면,

- ① 교법의 사회화에 기여
- ② 사회에서의 종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요청
- ③ 국가(도, 군, 시, 구, 읍)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므로 교무훈련이나 예비교역자 훈련과정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현장실습을 해야 하겠다는 과제를 더 부여하고 싶다.

## 2. 원불교 스카우트

### 1) 원불교 스카우트의 시작

원불교의 스카우트 교화가 시작된 것은 스카우트 행사에서의 원불교 종교의식과 원불교 종교장 제도 프로그램에서이다. 그러나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나 사회단체 중심의 스카우트활동이 아닌 학교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것은 교사 중심의 획일화된 집단 운영으로 최근에 업무 과다로 인한 교사들의 활동 거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교단에서는 청소년교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1984년 제주에서 김덕영교무와 김정택교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1989년에는 원불교스카우트협의회가 발족하였다.

### 2) 활동내용

원불교 스카우트는 청소년 사회단체에서 유일하게 종교의식과 활동이 합법화되어 있으므로, 정토회 자녀와 예비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총부의 직할대를 운영하였다. 매주 한번씩 대집회(법회)를 통해 환경운동을 하였다. 배산과 미륵산, 원광대 등에서 시작하여 전국대학생 야영대회와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 국제스카우트야영대회 등에서 청년교화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돌아왔다.

그리고 아구노리(전국스카우트 장애인 대회)라는 행사를 통해 교무와 예비교역자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가교도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울교구의 아마추어무선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유아대, 어린이회와 학생회를 통한 구조봉사대, 교무와 재가로 구성되는 원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동우대) 등을 운영하면서 각종 스카우트 행사에서 역할에 맞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양산교당의 김대옥교무는 어린이회와 어린이집의 유아대, 초등학교의 유년대를 조직하여 자연의 환경보호와 예절교육,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3) 미래적 과제

현재 원불교스카우트가 총부에 전담기구를 두고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으로의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사회가 전문화·분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지식수준과 여가 활동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종교 활동의 침체가 아울러 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당중심의 교화에서 지역사회 활동의 교

화로 시야를 넓혀볼 때, 종교의식과 활동이 인정되는 원불교스카우트의 조직을 살려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교리의 실천적 노력과 그러한 현실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지켜 나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 3. 사회복지 법인 원불공회

#### 1) 원불공회의 시작

봉공회는 1977년 발족이 되어 중앙봉공회와 교구봉공회란 이름으로 다양한 복지 활동을 전개하여 오다가, 원불공회란 이름으로 법인인가를 받게 되었다. 원불공회란 원불교봉공회를 줄인 말로써 종교적인 용어를 가급적 줄이고,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원불교내의 여러 법인 가운데 유일하게 그야말로 대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불공회가 1998년 6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성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함은 괄목할 일이며, 의미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면은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면에도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 2) 활동 내용

원불공회가 인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한 활동내용은 실직자의 거처를 위한 쉼터(2명), 모자녀 살림터(6명), 수해지역 무료급식과 봉사활동(자원봉사자 500명이 1,200명 혜택), 어려운 이웃 도배 봉사활동(자원봉사 500명이 92가구 혜택), 결식아동돕기 지원(176명),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대방동), 복녘동포 담요보내기 운동과 그 밖에 각 교구의 13개 지회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많은 자원봉사활동과 대사회적으로 실직자 지원사업, 쉼터 및 무료급식지원, 가출 소년·소녀 쉼터 및 상담소 지원, 호스피스 및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지원, 우리민족 구호를 위한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구치소 재소 임산부 돕기 및 출감자 재활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원대도와 삼동윤리의 정신 아래 재가·출가·국가·세계의 모든 인류를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 및 재해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정신·육신·물질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에는 각 지회 활동상황 및 현황과 봉공회원의 감상을 엮은 책자

「보은의 일터에서 은혜의 꽃 피우리」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 3) 미래적 과제

소태산 대중사님의 보은 사상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원봉공회의 미래에 몇 가지 과제가 있음을 밝혀 둔다.

- ①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조직력이 필요하다.
- ② 각 지회의 법인화 작업으로 대사회적인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 ③ 봉공회원의 관리, 재교육, 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 ④ 교화·교육·자선의 3방향 예산을 투명성·신뢰성·책임성 있게 배분한다.
- ⑤ 해당부서나 실행계획자 또는 실행자가 정기적(6개월)으로 공개토론과 함께 점검한다.
- ⑥ 교화상황보고서를 교화·교육·자선(봉공) 보고서로 만들어 관리를 체계화한다.

## 3. 마무리

이상으로 교단내의 3개 단체 대사회 봉공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솔솔송 자원 봉사대는 시작은 출가가 하였지만, 재가가 중심이 되어 원광대 정신과 병원 봉사활동에서 노인봉사활동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현재 이사장 신선화)되면서 대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원불교 스카우트 협의회는 환경운동 캠페인을 비롯하여 구조 활동 봉사방향이 연 구 중에 있으며, 출가가 시작하고 출가가 중심이 되어 있다.

원봉공회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직원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역시 출가가 시작하고 출가가 중심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린이 봉공활동은 원불교 스카우트 협의회가 두드러졌고, 청년회 봉공활동은 솔솔송 자원봉사대가 그리고 일반의 봉공활동은 원

봉공회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전국지회로 확산을 하고자 하지만 적극적인 교단의 뒷받침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원부족으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계획적인 활동에도 부족함이 많다고 알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이나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면서도 조직력의 부족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네 가지로 대사회 봉공활동 방안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정원에 봉공부원장이 있어야 하겠다. 대사회 봉공활동에 대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봉공단체들을 점검하고 후원 및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봉공활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되는 구심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작이나 자리매김은 출가가 하고 확산은 재가가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재가를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대내봉공활동에서 대외봉공활동으로 확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단이 작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육원, 자선원, 복지관, 양로원 등 우리 기관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나 경기도 수해지역에 1등으로 달려 갈 수 있는 대외봉공활동의 조직력 및 확산이 필요하다. 이때 원불교학과생이나 대학원생중에서 100여 명이 달려가서 2~3일 정도만 봉사활동을 하고 왔다면 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을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넷째는 교역자들에게 봉공활동의 교육이 필요하다. 불교는 계·정·혜(戒定慧)이지만, 우리는 정·혜·계(定慧戒)로 사은의 은혜를 갚고 크게 보은하는 지은보은의 교리실천과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한 생활종교이므로 우리 교역자에게 교무훈련이나 예비교역자 훈련과정에서부터 봉공활동의 교육이 프로그램에 추가되어 현장실습이 되며, 무아봉공의 산 불법을 전달하는 리더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의 방안들이 보장되어질 때, 대사회 봉공활동이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해 본다.

